

죽지 않는 '실패의 유령'



홍경안 의
시시일과

비엔날레를 비롯해 국공립 미술관 기획전 등, 동시대 치러지는 대규모 미술 전시들은 채집된 역사를 포함해 의미 있는 자료와 오브제들을 하나의 공간 속에 뒤섞어 놓는다. 여기엔 예술작품이라 정의되지 않았지만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된 것과 현실을 뒷받침으로 한 제의된 각종 사물 및 제안된 상상까지 포함된다.

전문 전시기획자라면 작품을 비교, 탈주, 복원, 충돌로 언급하고, 어긋남과 마주하기 등을 통해 비선형적으로 제시한다. 학제 간 장르 간 경계 넘기로 미학적 간극을 보여주며, 다층적 언어와 불특정 조건의 개입을 허락해 하나의 문맥을 만든다. 그리고 이 문맥은 새로운 미적 태도와 형식을 낳는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설적인 큐레이터인 '하랄트 제만'의 개념으로 해석하자면 '조직화된 혼돈'이다. 즉,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잡종의 과정들이 즉시각적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고, 전시라는 틀 안에서 예술과 비예술, 실제와 비실체가 얽히고설키 자유로운 미적 시도를 일으키는 상태라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짜서 이루거나 얽어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 구축한 체계는 과거의 전시방식과 차별을 유도한다. 가치 있는 미술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방향위에서 이전과 다른 예술생태계는 정립된다. 우리가 간과하던 논쟁, 논의의 대상이 비로소 의식의 일부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물론 전시를 통한 통상의 생경한 전개와 과격적인 작품으로 인한 논란이 간혹 대두되기도 하지만, 그 논란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술형식과 방법론에서의 미래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이 크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굵직한 그 어떤 전시에서도 예술형식과 방법론에서의 미래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개념 자체는 이해하는 반면, 반드시 구조가 개념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전시구조는 낙후되어 있다. 전시가 시각적 감흥에 멈추는 가장 큰 배경이자 사실상 불사의 유령을 소환하는 이유다. 이런 현상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치르는 행사에서 유독 심하다. 주변의 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기획자들을 힘들게 한다.

전시기획자들은 하나의 전시에 침투하는 기관, 지역, 대중, 미술계 내부라는 다양한 시선과 맞닥뜨린다. 돈을 대는 관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고(그중에서도

관객 수), 행사가 치러지는 지역의 눈치(지역작가 소외론)도 봐야 한다. 번벌력 있는 주제와 그에 맞는 작가를 참여시켜야 하면서도, 미술계 내의 반응(답론형성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당대 전시들이 철학 없이 부표처럼 흔들리는 원인에는 이처럼 전시를 전시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끼어들기와 명분 희박한 관여가 놓여 있다. 소위 지역일수록 그 참견의 농도는 진하다.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세계를 좌지우지 한다.

여기에 과대 포장된 기획자들의 실력과 일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태도도 개념이 단지 논리적 분별에 그치는 원인이다. 이들에게 전시의 입신의 도구요, 기획은 출세의 설계다. 그러나 신념 따윈 기대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서구 시선에서의 오만한 세계주의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됨에도 자각 없는 환경, 시도를 금기시하는 행정 역시 전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배경이다.

문제는 미술의 순수성은 그저 욕망의 알리바이이기에 기대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당장 변화하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현재, 아니 다가올 전시들을 기념비적인 것들과 대조해 보라. 깊이 보면 드러나고 가까이하면 읽힌다.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국토부-LH, 도시재생뉴딜 UCC 공모전 시상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캠퍼스D(Campus D)에서 도시재생뉴딜 UCC 공모전 '너의 도시를 재생하라!' 시상식을 개최했다. 8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 일자리' 등 4개 주제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인 '지역주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표현한 윤지은 씨의 '까치의 소식'이 수상했다. /국토부



삼성전자, '카페 휴:휴'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삼성전자가 '카페 휴:휴'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자들에게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지역공헌활동이다. 6일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 오픈한 카페 휴:휴 아산시 5호점은 평균 나이 70세의 어르신 바리스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바리스타 양성 교육과 실습을 거쳐 바리스타로서의 제 2의 삶을 시작한다. /삼성전자

속제로 남은 中 '5G 굴기'



기지수첩
김나인 (산업부)

다가오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중국의 굴기가 무섭다.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필두로 중국 대표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이 5G 시대를 앞두고 야심의 발목을 드러내고 있다.

5G는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최소 20배, 최대 100배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을 가능케 한다. 미래의 핵심 인프라가 될 5G 시장 규모는 2025년에는 약 845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최대 통신 장비 업체는 중국의 화

웨이이다. 시장점유율은 29.3%에 달한다. 통신 장비 가격은 20~30% 정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6개월 이상 앞서 있다는 평을 받는다.

중국 정부도 팔을 걷어 부치고 5G 상용화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5G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5G 기술 육성에 5000억위안(약 84조75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5G에 가장 준비된 국가 1위로 중국을 꼽은 바 있다. 내년 5G 상용화를 앞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고심하는 것도 화웨이의 기술력 때문이다. 미국 켈컴의 스티브 몰렌코프 최고경영자(CEO)는 5G 시대가 개막되면 중국의 IT 기업들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의 정상권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

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4G 시대 'IT 강국'으로 스마트폰, 반도체 등으로 앞서갔지만 5G 상용화 시점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18~2022년 5년간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통신 장비와 기기가 연동되는 구조 상 장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시장까지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

화웨이 장비 독식 우려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원칙적으로 특정 기업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국내 5G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중국의 추격을 추월하고 통신 강국의 역사를 새길 기회는 5G 상용화를 위해 발을 댄 이 시점이다.

/silkn@metroseoul.co.kr

인사

◆법제처 ◇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법제국장 김창범 ◇ 고위공무원 파견 △헌법재판소 김기열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안영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이수정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 TF팀장 오운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실험동물자원과장 김준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정명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정승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파견(인사교류) 이성희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 △기획교육실장 양찬희 △법무지원부장 이구수 △인천지역본부 부장 이용찬

◆경향신문 △논설고문 이대근 △논설주간 조호연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양권모 △조운찬 △김준기 △미디어전략실장 차준철 △전략기획실장 최병준 △문화사육국장

박구재 △후마니타스연구소장 박용재 △편집국 선임기자 이기환 △김종훈 △출판국 주간경향편집위원 강기성

부음

▲오수복씨 별세, 한정원·한지원(LGCNS 부장)·한지연(상암중학교 교사)·한희경(동안고등학교 교사)씨 모친상, 이석기(교보생명 경영지원실장·부사장)·장순민씨 장모상 = 7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30분. (031-961-9400)

▲김정순씨 별세, 조성원(명지대 농구부 감독)·한국여자농구연맹 재정위원)씨 장모상 = 7일 오후,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02-2258-5940)



BNK경남은행, 광암해수욕장 재개장 지원

BNK경남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폐장한 이후 16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광암해수욕장(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재개장을 지원했다. 창원영업본부 한기환 상무와 BNK경남은행 창원지역본부 10명은 지난 7일 개장식이 열린 광암해수욕장을 찾아 무료 찾집을 운영했다. /경남은행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사회통합계층 자녀 영재교육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통합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영재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지엠재단은 인천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통합계층(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조손·다문화 가정) 자녀 중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잠재성이 확인된 초등학교 100명을 선발해 지난 3월부터 격주 단위로 영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